

## 추도사

한국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60년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화천의 평화로운 골짜기에는 북한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초목은 대지를 푸르게 덮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산하에 10만여 푸른 생명이 묻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갖는 고난과 고통이 제아무리 헤아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전쟁 3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참혹함은 어떤 것에도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참혹했던 3년, 한반도에서는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스러지고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영국 등 UN연합군,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참전국의 생명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날의 희생과 상흔은 우리들 가슴마다 상처와 균열로 남아 우리의 발목을 아직까지도 쥐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더하는 것은 한반도전쟁이 세상을 덮어가던 이념 대결의 대리전이었고, 동족상잔의 크나큰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념의 칼에 피아가 갈렸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로 같은 얼굴인데도 총부리를 겨눠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산화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고, 고귀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속한 나라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이 땅에서 노력하다 전몰하였을 뿐입니다. 죽음에는 ‘너’와 ‘나’가 없고, ‘적’도 ‘우리’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에서 그 죽

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아가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진정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명 하나하나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생명을 가진 미물 하나라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온 몸을 희생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화천의 호수를 감싸며 바람이 불어 오듯이 우리는 상처와 이별을 안고 60년을 묻혀 있는 전몰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합니다. 존귀한 생명을 등한시 하는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염원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몰자들이 맺힌 응어리를 풀고 평온히 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겪은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보듬을 것이니 이 땅에 얹힌 아픈 인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묻힌 젊음과 고귀한 생명이 영원한 평화가 되어 이 산하로 돌아오기를 모두의 정성으로 발원합니다.

오늘 한국전쟁의 참화가 아로새겨진 이 땅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진력을 다하면서 위령제를 준비한 강원도와 화천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7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